



攝  
心  
實  
愛  
慈  
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 東友會報

1986年(壬紀 4319年) 8月 31日 第 114號 [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玄在  
인쇄인 崔在益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종구 필동 3가 26  
전화 : 267-8568  
274-7449

우편대체 :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 용맹東國, 레슬링 大學頂上에



### 아시안게임 앞두고 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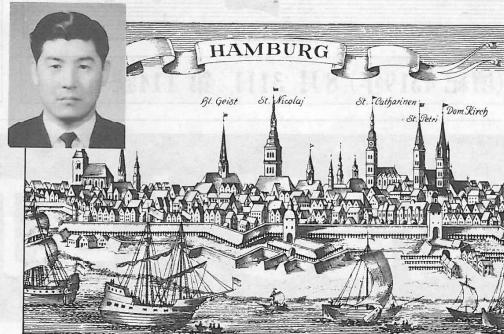
모교 레슬링부가 지난 19일 상무 올림픽 체육관에서 폐막된 「제10회 전국 대학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모교는 조규용 (체교 2·57kg 그레고로 망형) 김홍곤 (경행 4·90kg 자유형) 군등 총 15명의 선수가 출전, 금메달 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차지, 종합우승을 거둠으로써 대학정상의 위치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86아시안게임에서도 복싱의 김광선 (체교 4) 군을 비롯, 레슬링의 김영남 (84 체교), 김수한 (84 체교) 동문들이 금메달을 딸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 "Made in Germany means quality, but some have PURE Quality!"

20余年 獨逸, 西歐羅巴에서  
우리나라, 中東, 東南亞,  
阿弗利加, 美國等과  
各種品目의 貿易去來,  
技術諮詢, 事業管理 等의  
貴重한 經驗으로, 相互  
協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品質과 價格은 成功의  
씨앗입니다.  
願하시는 問議에 誠實히  
報答하고 있습니다.



社長 旌基 (氏56)

Tel.: 4103032/33, 4106401, Telex: 21 1313 choy d  
Böhmersweg 5, 2000 Hamburg 13, West Germany

As you know, the german quality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but some have PURE Quality as we know.

Therefore we are working successfully in Foreign Trade, Technical Consulting and Project Management with many german products (as well as other european products), more than 20-Year-Experience, from the simplest machines to the sophisticated plants.

This includes full service and licence-transfer if neces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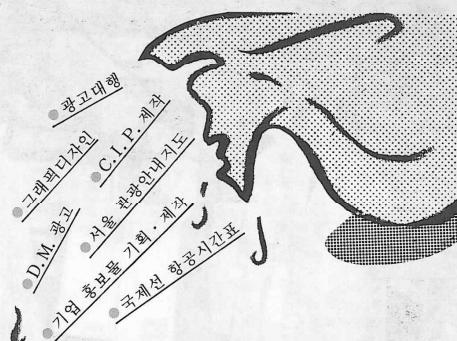
Are you interested i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we will do our best!

CHOY KG

Henry Chan Key Choy  
President

(Ofcourse we also import your products)

## 봇물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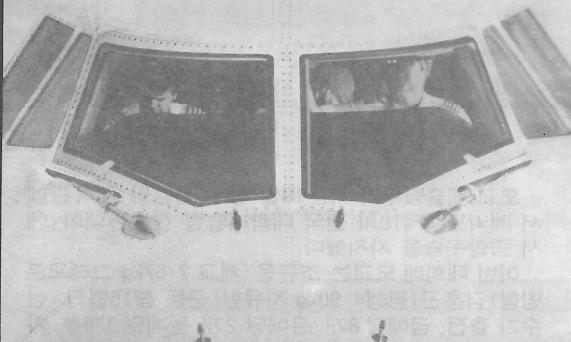
유니컴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이끌기 위하여  
축적해온 봇물을 트려합니다.

한방울 한방울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모아두듯,  
모든 경험과 깊은 안목으로 정성스레 펴어온 봇물—.  
좀더 성숙하고, 좀더 살찌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유니컴은 이제 조심스럽게 봇물을 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unicom**  
유니버설 커뮤니케이션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동 2가 48-20호, 경기빌딩 502호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8935      전화: 274-7214 · 274-4080

## 시카고, 씨애틀, 로스엔젤레스 미국 3대도시로 노스톱항공편 운항



미국으로 여행하실 때 노스웨스트 항공을 타시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노스웨스트 항공이 미국의 3대 도시로의 노스톱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도착 즉시 미국과 캐나다의 50여개 도시로 끈바로 모셔  
드는 노스톱 항공입니다.  
둘째, 기내서비스와 항공에서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즉, 한국인 이승무원이 철저한 서비스와 더불어 이코노미  
요금으로 일류급디비클 클래스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며,  
이해거리에 따라 무료여객의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미국여행은 원활한 노스웨스트 항공을 이용  
하십시오. 가장 많은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         |        |
|---|---------|---------|--------|
| 서 | 3:40pm  | 10:40am | 로스엔젤레스 |
| 우 | 1:45pm  | 12:55pm | 시카고    |
|   | 4:15pm  | 10:00am | 씨애틀    |
|   |         | 4:00pm  | 뉴욕     |
|   | 11:50am | 11:30pm | 샌프란시스코 |
|   |         | 9:00am  | 호놀룰루   |

제공은 기내 서비스 노스웨스트 항공으로 예약 시  
• 콜센트럴 (서울) 753-6106/9, 755-0416/7, 777-9786  
• 청대호텔 (서울) 778-8260/1 • 청진호텔 (서울) 752-2394/5  
• 소공사무실 (서울) 778-0181/7 • 범도텔 (부산) (051) 44-2240

이제부터 노스웨스트 오리엔트입니다.

NORTHWEST ORIENT



株式會社高麗家  
KOREAN INTERNATIONAL LIMITED

金洛天 駅

86·88대회 공식카렌다 삼품  
화권자로 올림픽회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 高麗家  
(대표=金洛天·81행원)。  
1978년 도서출판 「高麗家」를 설립한 후 출판문화사업에 주력해오면서 금동분이 「고려가」를 설립한 건 지난 84년으로 회사의 연혁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모회사인 「고려원」에서의 경험과 기술등이 바탕이 되어 미술상품들 고래피 사업을 주업종으로 「고려가」를 운영해오고 있다.

「고려가」에서는 삼품광고, 카탈로그, 팜플렛등 각종 판촉물의 기획·제작, 각종 기획 출



판사업 및 카렌다 제작을 비롯하여 전문 슬라이드 대여등의 사업을 하는 포토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포토뱅크에는 스포츠 슬라이드 및 각종 스포츠대회 자료 슬라이드, 한국의 아생화, 컴퓨터 그래피 슬라이드 등 대량의 슬라이드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을 맞아 국가적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공식카렌다 삼품화권자로서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와 황성을 목표로 한 올림픽카렌다들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게임에도 국제 상사와 합작으로 공식카렌다를 제작, 대회에 참가한 각국 선수단에 배부함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소설 손자병법」「소설 삼국지」「소설 영웅문」등으로 우리에게 낯익은 「도서출판 고려원」은 또 현재 6백여 종이나 되는 도서를 발간하

# 올림픽을 향해 달린다

◇◇◇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피에는 지전메달을 향해 정진하는 선수들이에 ◇◇◇  
◇◇◇ 도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업인들도 적지 않다. ◇◇◇  
◇◇◇ 올림픽 성공을 통해 국위선양에 일익을 담당하며 동국의 긍지를 드높이 ◇◇◇  
◇◇◇ 는 이들 올림픽을 향해 달리는 동문기업인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

는 등 출판업체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도서출판 업계에서는 T.V 광고를 맘껏 사용하는 등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고려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영어계통서적들이 대학 기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고려가」에서는 근일내로 영화와 소설등으로 잘알려진 「공포의 외인구단」을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올림픽 공식카렌다 삼품화권자로서 보다 고도의 기술을 촉각하고 경기를 쟁이 그라피사업과 함께 광고기획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동분은 현재 행정대학원 등장회 부회장이자 본회 상무 이사로 교교와 등장의 발전에도 활약하고 있다.

**(주)회인종합코미설**  
FINE COMMERCIAL CO., LTD.



朴太成  
同人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 대회의 공식 스티커 라이센시 회인종합커머셜(대표=朴太成·66경영)。

도자기인형과 「캐尼斯터」라고 하는 식기류 생산업체로서 특히 도자기인형은 전당 미국파 구리파동지에 수출되고 있는데 연간 1백50만불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朴동분이 올림픽 회장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콘테이너 부착용 필름 메이커인 미국의 화이트 그래피 시스템(WGS)사의 국내내리짐을 함께 경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스티커가 삼품화되지 않고 있는데서 올림픽을 계기로 보다

많은 수요를 창조해 보겠다는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되어온 스티커는 스크린 인쇄나 웃셋등으로 인쇄를 하여왔으나 헛별에 쉽게 변색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회인종합커머셜」에서 국내에 최초로 선을 보인 필름스티커는 불변색인크를 사용해 세차나 강한 햇볕등에도

몇배의 긴 수명과 미려한 외관으로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86·88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통해 국위를 한층 선양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朴동분은 이를 계기로 스티커문화에서도 선진기술을 도입해 보다 높은 수준의 스티커문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 東明印刷社



禹昌畧  
同人

최소 5년이상 변색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올림픽 마스크트인 호돌이 스티커등으로 국내외에 한국의 이미지를 싣고 또 최초로 필름스티커를 도입해 스티커문화의 수준을 높이게 된데 무척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다는朴동분은 작은 크기의 「리발」에서부터 콘테이너용 「데칼」에 이르기까지 1백여종에 이르는 스티커를 생산해 내고 있다.

요즈음은 스티커사업 분부와 기존의 화인종합커머셜을 오가며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을 위하여 바쁜나날을 보내고 있다는朴동분은 우리나라에도 스티커문화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일하고 있다.

특히 콘테이너용 데칼필름은 내구성이 강하고 단가도 비싸지 않아, 차량과 건물등에 부착하는 광고용으로는 물론 도로 표지판등에 사용하게 되면 기존 페인트로 제작된 것에 비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포스터, 조성장, 가발도그등 모든 원색인쇄물의 인쇄를 맡고 있는 東明印刷社(대표=禹昌畧·67농학·본회이사)

포스터등과 같은 고급옵션인 쇄물은 상당한 고품질을 요구하는것이 되어서 월만한 업체에서는 해내기 힘든 일로서 특히 올림픽포스터들은 외국으로도 나가게 되는 일이다.禹昌畧은 우리나라의 인쇄기술을 대표하는 사명감을 갖고서 완벽을 기하

고 있다고 한다.

禹동분은 평소 제품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재작업을 해서라도 완벽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또 절아작업을 해서라도 약속한 날짜에 납품을 하는 절저한 신용이 인정받아 올림픽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1974년 명한인쇄기 한대로 사업을 시작한禹동분은 회사의 상징인 꿀벌과도 같이 신용과 성실로 실실히뛰어 이제는 번듯한 사업과 함께 직원수도 20여명으로 늘어난 규모로 성장했다.

항상 신용과 품질을 바탕으로 일해온禹동분은 많은 고객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 한



동안 인쇄업체가 분장을 막을 때에도 거의 타격을 받지않았다고 한다.

무조건 많이만 하고 크게만 하기보다는 적당한 규모로 내신을 기이며 보다 쌓아온 경영과 기술개발로 선진적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禹동분은 평소 사업진단을 인간관계에 두고 신용과 함께 사원들의 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어느회사에 못지않은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본·미국등에 인쇄물을 수출도하고 있는禹동분은 또 매년 한두번씩 일본이나 동남아 등지에 나가 수주방법이나 시설, 영업현장을 배워와 실행해보고 있다고 한다.

禹동분은 우리세대에 이루어진 사랑근 유품인 86·88경내에 많은 인쇄물을 말게된데 공지를 갖고 저력을 다해 대회 성공을 이룩해 전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쉽게 되기를 바란다고.

禹동분은 대한민국에 대단해 세자녀가 진학할때면 모두 모교에 진학시키겠다는禹동분은 앞으로 자신의 회사에도 모교 후배들을 몇사람 기용할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선진 인쇄를 향한 우리의 도전과 자부심!

제1회 아시아경기대회  
10th ASIAN GAMES  
SEOUL 1986  
1986. 9. 25. ~ 10. 4.

東明印刷社

서울特別市 中區 崇洞2街 61-16  
TEL: 266-6323, 267-6313



경영학회

앞서가는

2천여명의 동문들을 회원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저희기운에 하나인 경영학과 동창회(회장=白正基·64경영·삼일설유 대표·본회이사)。

대규모 동우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지회보다도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모임을 통해 학교동창회의 특성을 살려 경영학과 후배들에 대한 장학사업은 물론 본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동우회는 70년도에 경영학과 2기 졸업생들이 창학기금을 만들며 재학생 후배들에게 「경영학과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것이 계기가되어 연락이 끊어지는 동문들끼리 모이기 시작하였다가 그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시 중단 되었었다.

그러다가 77년12월에 趙熙榮(63경영·現고교령상예학장) 등 문이 모교교수로 부임하면서부터 경영학과 동창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주위여러 동문들과 뜻을 모아 동창회 모임 갖게 되었다.

벌기총회를 겸한 첫모임은 77년12월9일 호수그린 맞은편의

## 2천여명의 회원, 단합과 결속으로 후배들에 장학금등 모교발전에 지대한기여

부산회관에서 7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회칙을 마련하고 趙熙榮(63경영·한국아랍친선문화협회 사무국장) 2대회장 및 許正植(69경영) 간사, 成百幸(66경영·대지운수株 전무) 3대회장 및 朴相範(66경영) 간사, 李昌圭(65경영·동광무역株 대표이사) 회장 및 鄭虎雄(67경영) 간사를 거쳐 5대 白正基회장과 申益炫(72경영·본회 사무국장) 4사무국장 및 趙椿煥(74경영) 총무등現임원진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해오며



▲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모교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으로 첫날이 되었는데 당시 회에서는 崔九희회장과 尹天泳 사무국장이 참석, 경영학과 동창회의 발족을 축하하고 무한한 발전을 기원했다.

趙熙榮과 함께 李昌圭(64경영) 등문이 간사를 맡아 동문들의 소재파악과 계속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편결과 오늘날 2천여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한 동창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同會는 또 그동안 경영학과에 재직하다 정년퇴임을 맞은 차관택, 허위, 한현 교수등 정년퇴임교수들의 퇴임식을 어느학과보다 먼저 성대히 치르고 기념노트집을 밤마다 하는 등 은사들의 공을 기리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同會의 모임은 매년 정기총회와 함께 연말총년 모임에는 2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단합과 결속된 힘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회장단 및 이사회를 격월로 열어 장학사업과 교육문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趙熙榮 초대회장



金容均 2대회장



李昌圭 4대회장

李昌圭 4대회장

특히 후배들에 대한 장학사업에 주력, 상당액의 장학기금을 모았다. 78년 9월부터 지금까지 시작해 그동안 60여명에 이르는 재학생 후배들이 장학혜택을 받았다.

정기모임에서도 회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는 대다수 회원들이 참석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있으며, 특히 현 白正基회장이 10년 전부터 경영학과를 중심으로 산악회를 조직해 매주 산행을 통해 우의와 친목을 다지고 있다.

한편, 경영학과 동창회는 앞으로 모교 80주년의 전통을

걸맞게 교외를 높이는 선두주자 될 것을 원한다.



白正基 基Honorary Vice Chairman



申益炫 사무국장



趙椿煥 총무

## 정년퇴임교수와 함께 몸은 떠나도 영원한 東國人

### 李龍範 교수



『유능한 후진들에게 미래를 맡기고 저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삽고 싶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분기집으로 정년퇴임을 맞고 싶다는 李龍範(사학과) 교수.

모교 문화부 사학과를 졸업한 후 30여년을 모교에서 재직해온 李 교수는 기억에 남는 일로 모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했을 때와 명진관(석조관) 낙성식, 의대 신설 등을 꼽는다.

대학원과 박물관장을 역임했던 李 교수는 『우리의 높은 문화수준에 긍지를 갖고 창조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시작 축면의 투자보다는 도서관, 박물관등에 투자해 내적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에게 베푸는 대학으로서 모든 종지 를 모아야 학교발전이 있다』고 말하는 李 교수의 뉘앙스에는 약간의 아쉬움과 함께 東國 80년의 역사만큼이나 깊은 의연함이 담겨져 있다.

### 閔泰鵠 교수



『착잡한 고요한 31년 4개월동안 있었으니 꼭 반평생을 이곳에서 생활하다시피 했음니다』라고 퇴임소감을 밝힌 閔泰鵠(화학과) 교수는 감

회가 새로운듯 지그시 눈을 감는다. 화학과가 신설된 다음 해인 55년부터 31년 간을 모교에 토탕오며 6백여명의 졸업생을 냈다는 閔 교수는 사회각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교육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이과대학장 재직시 생물학과 증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閔 교수는 『공부만 열심히 할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한다』며 오늘날의 대학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학생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좋은 대학, 우수한 대학이 될수록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내년 정도까지는 계속 교단에 서겠지만 그후에는...』하며 말끝을 흐리는 閔 교수의 얼굴에는 정년퇴임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 담겨있었다.

## 올림픽스티커

'86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대회의 공식 스티커가 라이센스로 선정되어 양대회를 통한 한국의 이미지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 스티커

뛰어난 시각적 효과로 상품의 가치를 높여 줄 뿐 아니라 반복적 전시효과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합니다.

## 옥내외 광고

옥내외 표지판이나 일반차량 및 콘테이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 강력한 접착력, 우수한 내구성을 자인

WGS사의 QMS필름은 시각적 효과와 경제성이 훤씬 뛰어납니다.



## 조홍은행 이사로 승진

林昌祐 本會이사



사로 승진했다.

林동문은 졸업후 줄곧 조홍은행에서 활약해온 금융인으로 회계부문에서는 알아주는 베테랑이다.

조홍은행 싱가포르사무소장 음 풍기에서 활약해온 금융인으로 회계부문에서는 알아주는 베테랑이다.

## 『文學精神』 창간

徐廷柱 동무



徐廷柱 (35중·  
시민)동문  
이오는 9  
월말 월간  
종합 문예  
지『文學精  
神』을 칭  
간한다.

『文學精神』의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고하는 徐동문은 36년 「시인부락」 이런 잡지를 펴낸 후 50년만에 다시 잡지에 손을 대게 된 것이다.

한편 순수창작을 위주로 편집될 이 잡지는 우리 문학의 해외소개나 해외문화작의 국내 소개등에도 역할을 할것이라고 칭찬준비 관계자들은 밝혔다.

## 「회계사……」마치고 귀국

李淇 and 동문



李淇 and  
(59경제·  
한국 공인  
회계사 회  
부회장·본  
회이사)동  
문이 최근  
미국 이리  
노이 대학  
에서 실시한 한국회계사를 위

한 연수과정을 마치고 귀국。  
3주에 걸친 이번 연수에서  
李동문은 한국연수단 단장자격  
으로 참가하여 시카고공인회계  
사회 및 뉴욕에 있는 미국공인  
회계사회들을 둘러보았다.

한편 李동문은 고교졸업후 생  
산성분부 전문위원, 서울신문사,  
국제상사 상무이사, 부동산상  
임감사, 미통설상상무이사, 국제  
금속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는  
세정회계사법인 이사로 재직중  
이다.

## [ 세계 국제법 ]…[ 曾長피선 ]

林德圭 동문

林德圭  
(60법학·  
『디플로마  
시』誌 회  
장·본회이  
사)동문이  
지난 25일  
제62차 세  
계 국제법

협의회 서울총회에서 한국인으  
로서는 처음으로 회장에 선출  
됐다.

林동문은 『『法의 윤리』』이  
라는 이번 회의가 본분국에서는  
처음 열렸고,對공산권과 교  
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면에서  
또 하나의 조그만 평화를 만  
들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라  
고 취임의 범을 대신했다.

한편 현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국제법협회는 1873년 뱃  
기밀의 브뤼셀에서 발족된 권  
위있는 국제법연구 학술단체로  
45개회원국을 갖고 있으며 한  
국은 64년에 가입했으나, 북한  
은 아직 비회원국이다.

## 호텔 프라자상무이사로

閔丙璣 동문

閔丙璣  
(62정치)  
동문이 최  
근 한국관  
공협회 회  
회장에서  
프라자 호  
텔 상무이  
사로 승진  
했다.

閔동문은 모교 정치과를 졸  
업한 후 청와대문화담당 비서관

배인에 부임 했다.

閔동문은 신성통신이사  
동아월간강상무, 아남전기 상임감  
사 등을 역임한 산업체에 종진  
이다.

을 거쳐 한국관공협회 산부부  
회장을 역임 하는등 한국관공  
협계의 중추적인 인물로 꼽히  
고 있다.

## 명예문학박사 학위받아

襄鍾大 동문

襄鍾大  
(62철학·  
영우 구타  
부대표·본  
회이사)동  
문이 9월  
5일 일본  
동경 소재  
특허 대학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 학위는 일본황실재단이 운  
영하는 특허대학에서 항도로 회

의 국가사회에 공이 지대한 사

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千允基 (50 歲) 前 캐나다  
東大門地方法院) 동문의 해외  
이민생활 20년동안 보고 느낀  
것을 「隨想」이란 제목으로 이번  
115호부터 6회에 걸쳐 연재한  
다.  
<편집자註>

가끔 신문지상에서 一世人와  
二世人의 세대차 문제에  
관한 기사를 읽게되고 또한  
문제에 관한 토론을 위한 모임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一世人은  
세계에 자유를 주고 적정을 말고  
잔소리를 말고 이해를 하고, 양해  
를 하고 적응을 하라 등등으로 끌  
나는 느낌이고 一世와 二世人를  
위하여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  
는 청망을 하는듯한 느낌을 받  
게 되는데 나는 一世의 한사람  
으로 부모의 한사람으로 이문  
제에 대하여 한 말씀하고자 합  
니다.

젊은 사람이 특별직이나 디  
스코류직을 좋아하고, 나이먹은  
사람이 부르스나 텅고를 좋아

이것은 곤란한 일이지요.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이 장  
발이나 평크마리에 퀴커리를 달  
고, 히피행색을 하고 돌아다니  
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젊은 사람  
의 빙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 어머니가 매일 청  
소를 하고 치워주다가 하도 지  
쳐서 부득이 말한마디 하게될

## 千允基 隨 想

때 젊은 사람이 어머니에게 미  
안한 마음, 감사한마음은 고사  
하고 오히려 어머니가 잔소리  
한다, 세대차 어제고한다면 이  
도 곤란한 일이지요.

또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부여했으면 사귈 경우 그것이  
크간 친한 미씨간 사건간에 자  
녀들이 그것을 아끼고 가치있  
게 사용하다면 부모의 마음은  
흐뭇할것이겠으나 그것이 얼마  
안가서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  
지고 없어버리고 하여 부모가  
말한마디 했을 때 자녀들이 부  
모가 잔소릴 한다. 세대차라고 하  
다면 이것도 곤란한 일이지요.

또한 젊은 사람이 원하는 새  
차를 부모가 사줬을경우 그자  
가 금방 주그리고 놀고, 스마트  
디자인, 캐릭터등을 수없이  
받고서도 벌금을 내질 않아  
어서 증액된 벌금티켓이 계속  
오고 급기야는 경찰이 법정을  
두 통지서를 갖고와서 물을 두  
드리기될때 부모가 부득이 말  
한마디 하면 젊은 사람이 부모  
가 잔소릴 한다. 세대차 어제고  
한다면 이것도 곤란한 일이지요.

또한 젊은 남녀학생이 학교성  
적기에는 미이너스 '나체점수'  
만 받아오면서 공부할 생각은  
않고 운동이다. 메이트다. 파티  
다 하고 별날없이 전화통에만  
말려肆시간을 보내고 심심하  
면 밥듯게 돌아오거나 또는 아  
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하여  
보다못한 부모가 말한마디 하  
게 될때 젊은 사람이 오히려 부  
모가 잔소릴 한다. 세대차운문화

고 나온다면 이것도 곤란한 일

이지요.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  
만 이곳 캐나다에서는  
中國 사람, 일본 사람, 불란서 사람  
이, 대미사람, 그리피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들 각자의 모국어를 분명히 하  
고 영어로 하는데 한국의 젊

말고 자유를 주시요,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편히 살다가 물  
아 가시도록 하시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든  
종족이나 제도가 다른 이민사  
회에서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  
는 부모라면 때와 경우에 따  
라서 신경을 쓰게 되고 걱정  
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각각의 없는 것이며 사람이라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평생을  
고치고 배워도 모자라는 것이라고  
그리고 배워도 모자라는 것과  
같은 부모를 찾기 어렵지만  
검진에 먼저 인간학상, 인간학  
성을 위하여 꼭 꼽아야 하는 것  
하고 모르는 것은 배운다는 정  
신적인 자세가 되어야 그  
사람이 끝나는 시련다운 사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세대차란 말의  
진정한 의미나 의의를 모르고  
『내일은 내가 알아 할 것  
이니 잔소리 말라, 걱정 말라, 꿈  
치아포고 괴롭히지 말라』  
라고 하는 속으로 다시 말하자  
면 번역이 될 수 없는 번역을 위  
한 번역을 하고 말도 인되는  
반항적인 태도로 온다면 젊  
은 사람이나 기성세대 사이에는 점  
점 거리를 멀어져지고 자연히 세  
대간의 고유한 차이가 줄어드는  
설립하고 스포고, 불행한 결과  
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 「世代差」



千允基  
<前캐나다동문회 고문>

할 때 이것을 世代差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젊은 사람이  
맥도날드에 가서 헬버거와 후  
렌치후라이스를 먹고 코카콜라  
를 마시고 식사를 했다고 하  
겠으나, 나이먹은 사람은 밥과  
김치를 먹고 국을 먹어야 식  
사를 한 것 같다고 하면 이것  
도 역시 世代差라고 할 수 있겠  
지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입  
장으로서 자라 나온  
젊은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고쳐주고 모르는 것을 고쳐  
주어서 좀더 사랑다운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이것을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잔소릴한  
다. 세대차 운문하고 나온다면

은 사람들은 이런 생활 몇 년 만에  
한국말을 알아버렸다 하고 나  
는 오히려 어머니가 잔소리  
한다, 세대차 어제고한다면 이  
도 곤란한 일이지요.  
또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부여했으면 사귈 경우 그것이  
크간 친한 미씨간 사건간에 자  
녀들이 그것을 아끼고 가치있  
게 사용하다면 부모의 마음은  
흐뭇할것이겠으나 그것이 얼마  
안가서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  
지고 없어버리고 하여 부모가  
말한마디 했을 때 자녀들이 부  
모가 잔소릴 한다. 세대차라고 하  
다면 이것도 곤란한 일이지요.

또한 젊은 사람이 원하는 새

차를 부모가 사줬을경우 그자  
가 금방 주그리고 놀고, 스마트  
디자인, 캐릭터등을 수없이  
받고서도 벌금을 내질 않아  
어서 증액된 벌금티켓이 계속  
오고 급기야는 경찰이 법정을  
두 통지서를 갖고와서 물을 두  
드리기될때 부모가 부득이 말  
한마디 하면 젊은 사람이 부모  
가 잔소릴 한다. 세대차 어제고  
한다면 이것도 곤란한 일이지요.

또한 젊은 남녀학생이 학교성

적기에는 미이너스 '나체점수'  
만 받아오면서 공부할 생각은  
않고 운동이다. 메이트다. 파티  
다 하고 별날없이 전화통에만  
말려肆시간을 보내고 심심하  
면 밥듯게 돌아오거나 또는 아  
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하여  
보다못한 부모가 말한마디 하  
게 될때 젊은 사람이 오히려 부  
모가 잔소릴 한다. 세대차운문화

일이지요. 만약 부모가 저를  
돌봐야 되면 캐세리세리 말의  
자녀가 무수치를 하면 어떻

게 되어가면 그냥 내버려둔다

면 그것은 무책임한 부모이

고 자격을 상실한 부모지요.

네 그렇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말과 같이 하세상

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한 인

## 운전기사 沈孝雄

『7·8년쯤 되나요, 학생  
회 간부들을 태우고, 청복고  
창으로 수련대회를 떠났다가  
그만 도중에 모두 식중독에  
걸려, 전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시킨적이 있었지요... 정말  
아찔했어요』

68년 5월 金東盈총장 운전  
기사로 부임하여 얼마간 송  
용차를 운전하다가 10여년 전

이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이 보답하는 것  
이지』

터 감사패를 4번이나 받았  
는데 여기에 대해서『내가 잘  
했다가 보다는, 앞으로도 잘  
해달라고 하는 격려의 표시가 아  
니겠느냐』고 겸손해하기도.  
부인 李吉子(43세) 여사  
와 사이아이 4남을 두었는  
데 장남 申哲(화학과 3년)  
남남 申殷(전자과 1년) 두  
형제가 교보에 재학중에 있

『東國가족이기도 하다.』  
『학교당국의 배려로 이  
만큼 살아왔습니다. 해준 것

보다, 받은 것 같지도, 열  
심히 일하는 것이 보답 하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에 음지에서 일  
하는 東國의 각오를 읽을  
수 있어 흐뭇했다.

특히 沈기사는 학생들로부터

## 東友會報 창간10주년 기념 광고기획⑤ —「서로돕는 同門社會」

**대우지동차(株)**

“멋과 개성이 함께 달린다”

- 펜시 - 나
- 로얄XQ
- 프린스 1.5
- 로얄 프린스
- 로얄 써룡
- 써룡 슈퍼
- 월드카 (르망) 판매시
- \* 중고차 중개

판매대리: 喬鉄石 (74연경)  
TEL: 544-1928 · 1128  
(야간) 487-7539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 B/D 1층)

**신옹·친절·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 외국 수입견  
● 교활사육상남  
● 각종 견구 취급  
● 애완견분양

대표 서영진 (61경계)  
중구 총무로 5가 73-2  
266-0731 · 267-0195  
265-0086

**桃園꽃집**

화환 · 꽃바구니  
생화 · 신부화  
화분 · 농 · 서양란

TEL: 266-4571  
야간: 602-4806

대표 辛承水 (72경계)  
서울·중구 총무로 4가 125-1  
진양빌딩 3층 42호

● 금은 · 보석 · 시계

**三正堂**

TEL: 779-3360  
서울·중구 명동지하상가 4층 1호  
대표 金基俊 61경계

**東國人은  
東國인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영문)  
776-7895 ~ 7  
752-4396 ~ 7  
삼구빌딩 1103호  
(조선호텔후문 맞은편)

# 東國레슬링 頂上 재확인

## 「전국대학 레슬링 선수권대회」종합우승

모교 레슬링부가 지난 19일 산부울립체육관에서 페막된 「제 10회 전국대학 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6일부터 4일동안 열띤 경기를 벌인 이번 대회에서 모교는 총 15명의 선수가 출전, 금메달 8, 은메달 2, 동메달 3개로 종합우승, 대학점상임을 재확인했다. 각 체급별 개인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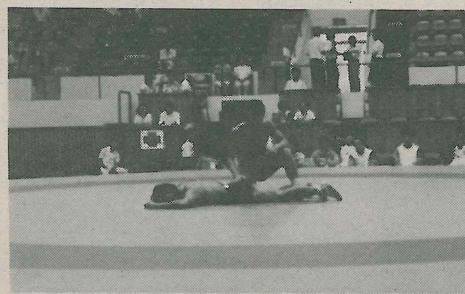
▲그레 코로당형=조규용(체교 2·57kg) ▲자유형=고영호(체교 2·62kg) 김광수(경형 2·74kg) 김정복(경형 1·74kg) 김태현(국교 2·57kg) 김홍곤(경형 4·90kg) 문상훈(국교 1·100kg) 최인혁(경형 2·68kg)

◇준우승

▲그레 코로당형=정성준(경형 3·82kg) ▲자유형=배태혁(체교 3·52kg)

◇3위

▲자유형=법희갑(체교 1·52kg) 오현택(경형 1·82kg) 무심훈(국교 1·90kg)



▲해마다 성장하는 모교레슬링부가 올해도 역시 「제 10회 전국 대학생 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개기장을 올렸다. (사진은 본교 레슬링부가 경기하는 장면)

◇최우수 지도상=배기열교치  
◇최우수 선수상=김홍곤(경행 4)

**박물관 改築마쳐**  
지난 6월 30일 舊전자계산소

자리로 이전한 박물관은 방학 중 개축공사를 모두 마치고 유물정리가 끝나는 10월초 개관 예정이다.

지난 4월 26일 착공된 박물관 개수공사는 총 3천 82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제 1·2 전시실 및 보교 80년 기념사료실, 뮤ージ엄 등이 마련되었다.

**慶州안보심포지움  
과통일원장관참석**

교묘의 한보연구소(소장=閔丙天교수) 주최 「제 8회 전국대학 통일문제심포지움」이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경주캠퍼스 인문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朴東鎮國土통일원장관은 비롯 남都漱水총장, 閔丙天연구소장등 각계인사, 교수, 학생들 2백여 명이 참석, 「제 2 대화시대의 대학생」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 동시에 평화에 관한 이론의 체계적 연구와 그 실례 및 정책

분석, 국내외 학제와의 교류 등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는 전국의 대학생 대표 72명이 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

## 「80주기념관」 한창 진행

## 문화예술공간 확보에 큰 기대

모교의 개교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동국 80주년 기념관(기념관)」의 기본설계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 총무처에 따르면 학내 사정등으로 그동안 착공이 연기되어왔던 80주년기념관은 10월 중순경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惠專 교표를 찾습니다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新羅明과**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 경영)

**HD**  
HYUNDAI

現代自動車(株)

현대생산차종; 엑셀 AMX  
프레스토  
CXL  
소나타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그렌저” 판매개시

2,000CC  
2,400CC  
3,000CC

**세무사 鄭大鎮 (63법학)**

**稅務 상담 · 기장대리  
심사 · 심판 · 청구**



전화 856-6182 854-5618  
856-4924 853-4635

세무사 정대진사무소

“선희 한동화로...”



TEL 274-3103-7  
이간 914-6584

판매과장: 柳在善  
(70 경영 · ROTC 8기)

## 후기대학원 학위수여식 거행 박사 17명, 석사 1백 33명 배출

모교 4개대학원의 8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30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거행되었다.

吳綠圃재단이사장, 李智冠총장은 비롯 眞奎경영대학원 동창회장, 宣普圭본회 상임부회장 등 동창회 임원과 교수, 친지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학위 취득자 17명을 비롯 대학원 석사 42명, 행정대학원 24명, 경영대학원 28명, 교육대학원 39명 등 1백 33명이 학위를 받았다. (관련기사 7면)

박사학위 취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趙錦一(철학) ▲朴東俊(교육학) ▲韓相辰( ) ▲李南基(법학) ▲金鎮奉( ) ▲李環浩( ) ▲孫辰( ) ▲張鶴權( )

▲金景中(경제학) ▲劉光弼( )  
▲權純一(경영학) ▲車在善(수학) ▲李孝森( ) ▲南廷七(입학) ▲崔水得(충용생종합) ▲吳璽( ) ▲尹用德( )

## 行試 1 차 9명 합격 宋군등재 학생 4명

지난 9일 발표된 「제 30회 행정고시」 1차 시험에서 송도현(행정 4) 군은 4명의 재학생을 비롯 9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도현(행정 4) ▲김재곤(2부 경제 4년) ▲황양근(2부 경제 4년) ▲최영진(2부 경제 3년) ▲유현언(86행정) ▲김윤호(83행정) ▲김갑수(85경영) ▲정경렬(83사내) ▲정관수(85교과)

## 신임교수 3명 임용 9월 1일자

## 정년퇴임교수 2명은 대우발령

모교당국은 9월 1일자로 신임교수 3명을 임용하는 한편 정년퇴임한 李龍範(사회학) 교수와 閔泰鶴교수를 대우교수로 발령했다.

李 교수와 閔 교수는 각각 대학원장과 이과대학장을 역임, 학직해 오다가 이번에 퇴임하게 된 것이다.

새로 임용된 교수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韓振洙(경상대회계학과) 조교수=53년 용인生 ▲75년 서울대 사회학과=80년同대학원 회계학과(석사) ▲85년 善美디아나大 회계학과(석사) ▲86년同대학 회계학과(박사)

▲86년 同대학 강사

▲梁承永(법정대 사과과) 조교수=51년 서울生 ▲74년 서울대 사회학과=80년同대학원 사회학과(석사) ▲82년 美시키고大 사회학과(석사) ▲86년 同대학 사회학과(박사)

▲86년 서울대 강사

▲柳泰熙(사법대 수교과) 조교수=53년 강화生 ▲79년 모교 수교과=81년 모교대학

원 수학과(석사) ▲86년 日本 京都市 수리공학과(박사)  
▲86년 모교 내수전집강사

**李木良여사**

장학금, 유물희사

汶汀 李末良(계림 고전부음 학원장) 여사가 모교 경주캠퍼스에 장학기금 2천만원과 개인소장 유물 19점을 기증해왔다.

李여사는 南都湖 水涌亭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평소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李여사는 또한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가야금 3점을 비롯, 거문고 2점, 장고 1점, 대금 1점, 단소 5점, 피리 4점, 비녀 1점 등 총 19점을 바를 판에 기증했다.

李여사는 또한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가야금 3점을 비롯,

거문고 2점, 장고 1점, 대금 1점,

단소 5점, 피리 4점, 비녀 1점 등 총 19점을 바를 판에 기증했다.

회비…1년에 1만원

**金屬商社**  
一山金屬  
信斗社  
金屬商社  
金屬工芸社  
社社社

信一金属: 서울 中区 乙支路 3街 251-3  
電話 200-0002, 205-3258  
275-5615

斗山金属: 서울 中区 山林洞 152-2  
電話 285-1516

信一工芸: 서울 中区 乙支路 3街 251-3  
電話 265-1317

실내장식용금속판매



대표이사 金鍾葉

(84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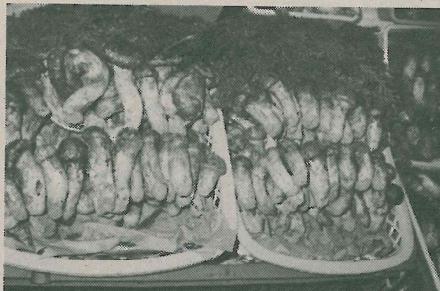
이색동문 訪  
朴大赫 동문



『남대문시장의 만물박사』「송이박사」 등으로 통하는 朴人赫 (63생물·홍창 대표) 동문。

『30여년을 남대문시장서 장사하다보니 자연 이것저것 주워들어 알게되고, 또 송이버섯을 오래 취급하나보니 이제는 송이에 관해서는 전국에서도 최고고객이 되었지요. 그러다보니 남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 남대문시장「송이박사」…30년을 송이와 함께 모교 야구경기보기 위해 비행기로 부산까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해 고학으로 대학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남대문시장에서 뛰어들어 이제는 송이버섯 수출만도 연간 50만불에 달할 정도로 번창했

다.  
또 3년전부터 시장에도 점포를 갖고있어, 새벽두시면 시장에 나와 위탁판매와 수출포장을 하고 6시에 남대문시장으로 가 그곳 점포와 「홍창」

### 『얼빠진 사람이라면 모를까』

#### 양담배 피우지 맙시다

○…민족경계를 즐기는 양담배를 피우지 않아야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최근 고등문이 본회사무국을 찾아와서는 우연히 생긴 것이라며 양담배 1갑을 쳐쳐 끊란하다며 놔두고갔는데…

사무국에서도 역시 처치곤란하여 찾아오시는 동문마다 권해보았더니 한동문도 예외 없이『얼빠진 사람이다 아니고 서야 양담배를 피우겠느냐』며 거절, 결국 쓰레기통으로 낸서버리고 말았다.

국민경계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더군다나 민족의 사학인 東國에 적을 둔 코끼리가족이라면 더욱더 양담배를 멀리하리라 믿습니다.

회보광고…一石二鳥

○…본보에서는 지난111호

로 한간10주년을 맞아서로돕는 동문사회…이왕이면 동문기업을 이용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이래 기념기획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광고를 게재해본 동문들은 회보에 실린 광고 턱으로



동국대 동동창회 동동작업

전화등이 쇄하고 있다고들 거운 비명.

이에 본보에서는 기획광고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로하였으니 동문 제위까지.

『코끼리氏, 연락 자주 주세요』

### 동국인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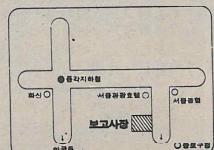
### 보고스튜디오

- V. T. R 및 8% 소형영화 제작보급
- 상업사진·카다록·앨범 기획제작
- 약혼, 결혼, 여권, 비자, 각종행사 촬영
- 출장 촬영촬영
- 동국인 특별우대

代表 李光順

(경원홀)

종로구 청진동 88번지  
전화: 732-6934



해마다 이맘때면 추석선물등으로 사가고해서 물건이 모자랄 경경이란다.

또한 송이버섯과 함께 가꿀 치, 잉어등과 같은 약재선선에 일기장을 갖고 있는 차동문은『언제든지 송이나 선선을 비롯해 남대문시장에 관한 모든 것을 문의해으면 성의껏 답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바쁜생활속에서도 모교의 운동경기장이 있는 날이면 한경기도 빠지지 않고 응원을 간다는 차동문은『모교의 경기를 보지않으면 장사가 안된다』며, 지방에서 경기가 있으면 비행기까지 타고가 관람을 하는 열성파·동국인으로 특히 가족중 5형제와 두처남 사촌·조카등동국인이 무려 12명이나 되는 동국가족.

현재 교교 2학년에 재학중인 딸에이어 현재 재수를 하고있는 아들도 꼭 모교에 진학시키겠다고 한다.

현자 성복동문화의 감사를 맡고있기도 한박동문의 가게에는 매일같이 5~6명의 동문들이 드나들어 마치 동창회 사무국을 방문케 한다고. 연락처 (777)4 675

季동문은 이책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든 현실을 그 살아있는 현실 그대로 만나고 받아들이려는 정직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작은행복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이고 있다.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현실의 각박한 생활에서 잠시默默想의 경지에 들입할 수 있는新書이다.

〈汎潮社刊·3천 5백권〉

『다시 하나가 되라』

申庚林 (59영문·시인·민요연구회장) 동문이 최근 自選수필집 「다시 하나가 되라」를 펴냈다.

민요연구회장을 맡고 있는申동문이 나그네가 되어 전국을 떠돌며 얻은 영감들을 잡지와 신문에 발표했던 그대로 얻은 수필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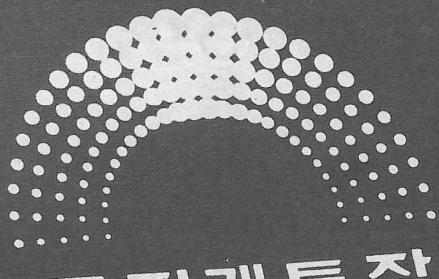
申동문의 「民謡記行」에 이은 이번 수필집은 기증·민중에서 나왔던 설화·민요·전설 등을 통해 현대인들의 정서순화, 망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있다.

〈語文閣刊〉

1등 1억원

# 올림픽복권

자유저축예금



무지개통장

한국주택은행

무지개 종합 통장을 가지신 분은  
올림픽복권을 정기적으로  
집에서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행운을 드리기 위하여  
복권을 보다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우편판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60여개 주택은행 각 지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무지개종합통장으로 정기적인 복권 구입신청  
을 하시면 복권을 매달 데크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운의  
기쁨과 수입의 즐거움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복권업무대행



한국주택은행



金庸大河歷史長篇小說

# 小說英雄門

\*金一江  
옹김

제1부 豪古의 별전6권 완刊!  
제2부 英雄의 별전6권 완刊!  
기상천외한 사건들과 수현만 독자를 열광시킨 소설!  
전세계

氣를 펴라! 大人이 되라! 웅지를 품은  
大自由人으로 거침없이 人間世를 살아가라!

**제1부** 蒙古의 별 - 야망과 목수,  
信義와 반목의 대파노라마  
宋의 유민으로 몽고초원에서 자란 광정, 그의  
악혼녀이며 정기스칸의 외딸인 화쟁공주,  
金國의 왕자 완안강, 長春真人 구쳐기,  
몽고의 작은 영웅 철별, 신비의 섬 도화도주  
황양사, 그의 딸 황용, 그리고 술한 영웅  
호걸들의 출현!

**제2부** 英雄의 별 - 인간  
본능과 애정의 대서사시  
곽정·황용의 딸 괴부, 양강의 아들과 그의  
연인 소용녀, 몽고 승상의 두 아들 아율진  
아율재, 티벳의 라마승 금륜법왕 등 파란  
만장한 인물들이 모순에 찬 세상과 인연에  
반항하면서 흥미진진하게 펼쳐나가는  
정을 테마로 한 대서사시!



• 제1부 전 6권 / 제2부 전 6권 / 각 330면 내외 / 각권 값 3,000원 • 날권판매  
단체주문 ☎ 739-7741 ~ 3 / ★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虛世學의 교과서, 政治學의 보감, 企業經營의 지침서!

# 小說孫子兵法

小說孫子兵法에 이은 또 다른 力作, 小說楚漢誌!

# 小說楚漢誌

• 전 4권 / 각 300면 내외 / 각권 값 2,800원 / 날권판매 ★ 서점에 있습니다.

인류사상 最大的 인생홍망극, 小說三國志!

# 小說三國志

• 전 6권 / 각 330면 내외 / 각권 값 2,800원 / 날권판매 ★ 서점에 있습니다.